

전주 유아들,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꾼다

시, 어린이집·유치원 23곳과 협약체결

전주시 유아들이 생활권공원 내 가족나무를 시민들이 스스로 돌보는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꾸기 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30일 전주시청에서 그린유치원 등 공원과 인접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3곳과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꾸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협약을 체결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들이 인근 공원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원아와 그 가족들이 나무에 이름표를 붙이고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해 스스로 가꾸고 돌보는 사업이다.

협약을 체결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도시공원 내 가족나무를 가꾸고 수목·화초 심기, 잡초 제거 등 환경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 공원 시설물

파손 및 공원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 명예시민 공원지킴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쓰레기봉투 등 공원 환경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을 제공하고, 수목 전지와 전정 등 전문적인 나무관리 서비스와 고사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목 등을 제공기로 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꾸기 사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쾌적한 도시공원

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전주 도심 속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공동체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우선 공원과 근접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가족나무 가꾸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향후 학교와 기업, 경로당 등 사업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꾸기가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는 공로패 수여와 인센티브 제공, 관리단체의 표지판에 우수공원 표시 등을 통해 자긍심도 높여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노인 공익활동사업'과 연계한 도시공원 관리, '공원살피미(Adopt-a-Park)' 활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공원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꾸기 등 시민참여 공원관리사업을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한 전주지역 도시공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도시공원의 주인은 시민이며, 모두가 함께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어린이가 뛰어 놀면서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도시공원, 모든 시민들의 생활 속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가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30일 시청실에서 그린유치원 등 공원과 인접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3곳과 도시공원 가족나무 가꾸기 협약을 체결한 후 아동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주관광 서비스 품질 높인다

전주시, 15일까지 U-20월드컵 대비 우수 숙박업소 선정

전주시가 내년 5월 개막하는 2017 FIFA U-20월드컵을 앞두고 우수 숙박업소 선정으로 전주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5일까지 U-20월드컵 경기관람을 위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U-20 월드컵 맞이 공공위생서비스 우수 숙박업소 선정에 나선다.

시는 올해 숙박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95점 이상 받은 업소 중 우수 업소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 업소를 선정해 U-20 월드컵 맞이 공중위생서비스 우수 숙박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조건은 △주차장 차단막 제거 및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관광

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接客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간편한 조식을 무료 제공 가능할 것 등이다.

시는 앞으로 선정되는 숙박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올 연말 우수 숙박업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숙박업소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영업자도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강승권 전주시 자원위생과장은 "U-20월드컵을 대비해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내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 사무총장에 선임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 사무총장에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이 선임됐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지난 29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16년도 정기회를 열고 협의회를 이끌어갈 선임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명지 의장이 사무총장으로 선임됐으며 공동회장에 광주광역시의회 이은방 의장, 경남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등이 각각 선출됐다.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낙후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 완료

사업비 3억원 투입... 시 전체 206km² 중 15km² 이상

전주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변화된 지형지물 정보를 최신 정보로 지도를 수정하는 '2016년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전주시와 국토지리정보원과의 50:50 매칭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주시 전체 206km²(962도엽) 중 도로개설, 주택재개발,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형지물이 가장 많이 변화된 15km²(60도엽)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측량 기술을 활용 지표면상의 위치와 지형, 지명, 건물, 도로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및 색상 등으

로 표시 컴퓨터에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제작한 전자지도다.

시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공간계획 수립과 재난 방재 시설물관리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지원으로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만성지구와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지역인 예곡시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각종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내년 초까지 조사하여 2017년도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급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은 각종 시설물관리와 도로굴착 및 각종 인허가에 활용돼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간정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상습 차량털이 1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새벽시간대 아파트를 노려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자행한 고등학생 A씨(17, 남)를 형사입건 했다.

10대에 불과한 피의자는 9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9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덕진경찰, 공중화장실에

첨단 안심 비상벨 설치

전주덕진경찰서는 30일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공중화장실 2곳에 첨단 안심비상벨(ONE-SHOT)을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심비상벨은 위급 상황시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화장실 바깥에 설치된 경광등이 경보음과 30초간 울리며 동시에 경찰 상황실로 연결되는 기능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응급 역시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갖추었다고 밝혔다.

박성구 경찰서장은 "여성이 신속하고도 때론 은밀하게 범죄에 대응함으로써, 위급 상황시 경찰관이 신속한 출동을 통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한 치밀한 방범진단과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더욱 안전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박순종 전주부시장 취임

박순종 前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전주시 제47대 부시장(사진)으로 취임했다.

박순종 부시장은 "지난 30여 년간 중앙부처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 사람 중심의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 만들기에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많은 정책들이 현장에서 빛을 발해 시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남원 출신인 박 부시장은 지난 1985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 풍부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지도역량을 겸비한 행정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과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행정사무관을



거쳐 지난 2003년 서기관으로 승진,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양성3팀장 및 사무처 재정기획관,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및 사회조직과장,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민선6기 후반기 내실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발전의 힘찬 발걸음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주시 전 직원이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 되고, 전주가 좋은 도시를 넘어 위대한 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